릉라도의 여름

주체106(2017). 8.

릉라도 하면 사전에는 《평양시의 중심부를 지나 흐르는 대동강가운데에 있는 섬》이라고 되여있다.

옛 전설에 의하면 릉라도는 원래 대동강상류인 성천의 비류강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어느 해 여름인가 전례없는 장마로 인해 바다처럼 범람한 비류강의 섬이 움씰움씰 떠서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멈춰선 곳이 바로 모란봉의 청류벽앞 대동강 한복판이였다. 그때문에 성천부사와 평양감사사이에 릉라도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릉라도를 평양성으로 넘기지 못하겠으면 당장 성천관내로 옮겨가라는 평양감사의 말에 노발대발하던 성천부사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였다고 하는 옛이야기가 전해져내려오고있다.

한폭의 아름다운 꽃바구니인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릉라도는 예로부터 명승중의 명승으로 불리워왔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이 결코 인민의 웃음과 랑만으로 이어진것은 아니다.

오늘날 릉라도가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천지개벽하게 된데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릉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보다 훌륭하게 돋구어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꾸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유원지에 심을 나무의 종류와 장소까지 선정해주시였을뿐아니라 손수 여러 그루의 나무까지 심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훌륭히 꽃피우시기 위하여 릉라도에 15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경기장과 최신식의 릉라다리를 건설하도록 하시는 등 릉라도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말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도 릉라도지구를 릉라인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유원지명칭을 몸소 릉라인민유원지로 명명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릉라곱등어관, 릉라물놀이장, 릉라유희장 등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으며 유원지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신 그이께서는 릉라인민유원지를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의 손길아래 오늘날 릉라인민유원지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기쁨속에, 웃음속에 유원지를 끝없이 찾고찾으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물놀이장**

아이도 어른들도 누구나 한번 들어서면 기쁨속에, 웃음속에 시간 가는줄 모르는 릉라물놀이장의 즐거운 여름

푹푹 찌는 삼복에는 뭐니뭐니해도 물놀이이상 없을줄 안다.

더우기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다기능물놀이기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릉라도의 물놀이장인데야 더 말해 무엇하랴.

서로서로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은모래 반짝이는 모래터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들이 눈길을 끄는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18m높이의 미끄럼대에서 쏜살같이 내려꽂히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탄성이 터져나온다. 한편 와하- 웃음소리 터지는 곳에 가보니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차례로 물에뛰여들기선수마냥 아찔한 조약대에 척 올라 손을 흔들다가 허공을 날아내리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라 둘러선 사람들은 배를 그러쥐고 돌아간다.

그런가 하면 모래터배구장과 롱구장에서는 《와와!》 함성을 지르며 승부를 다룬다.

아이들은 더할나위 없다. 한여름만 손꼽아 기다려온듯 오히려 무더위가 반갑다며 승벽내기로 물속에 뛰여들어 덤벙덤벙 발장구를 치며 돌아간다.

참으로 아이도 어른들도 누구나 한번 들어서면 기쁨속에, 웃음속에 시간가는줄 모르는 릉라물놀이장의 즐거운 여름이다.

덕수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근로자들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모습이 장관이여서 구경군들도 좋아라 탄성을 터친다.

물미끄럼대뿐아니라 물놀이수조, 조약대수조, 어린이수조, 덕수터 등 물놀이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릉라물놀이장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련일 흥성인다.

희한하게 펼쳐진 바다세계

곱등어와 물개의 재주를 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맛보는 릉라곱등어관

바다의 곱등어가 대동강 릉라도의 절경에 반해 훌쩍 뛰여올랐다 굳어졌는가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여기가 바로 릉라곱등어관이다.

출렁이는 푸른 파도를 형상한 무대정면과 모래불로 형상된 무대바닥 등 릉라곱등어관에 들어서면 마치 바다가에 온것만 같은 상쾌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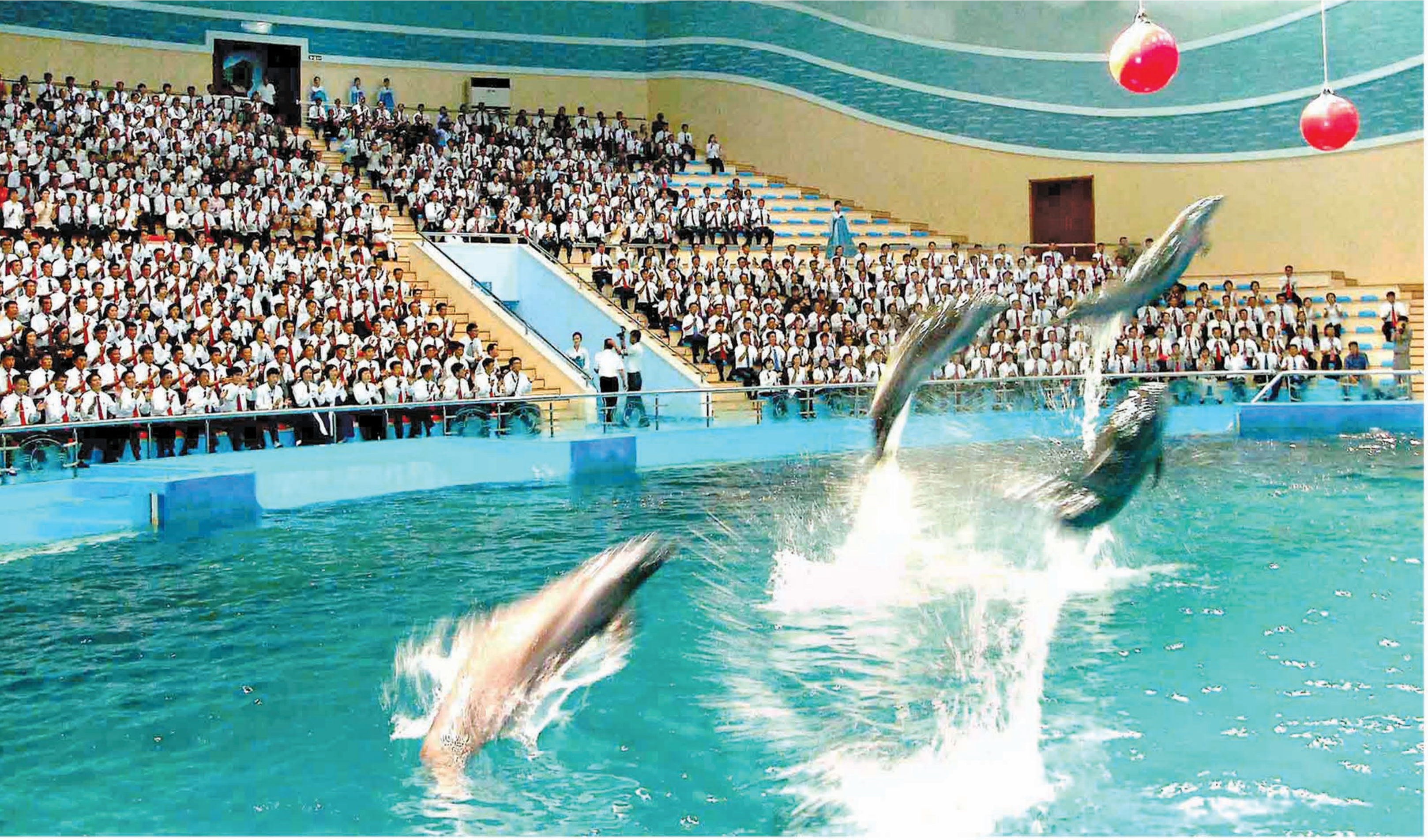
게다가 곱등어들의 공연은 얼마나 기막힌지.

사람과 악수하기, 회전춤추기, 뒤로 가기, 산수계산맞추기, 곱등어와 《인어공주》로 불리우는 조교사들과의 수중교예…

이어 뒤발로 바닥을 쓸며 앉은뱅이걸음새로 무대에 나와 앞발로 《박수》를 치거나 육중한 몸통을 절반 굽혀 인사를 하는가 하면 주둥이로 공재주를 부리고 조교사가 던져주는 륜을 실수없이 꿰지르는 등 기묘한 동작을 재치있게 수행하는 《희극배우》 물개의 출연에 폭소를 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날렵하고 재치있는 기교동작들을 펼쳐보이는 곱등어와 물개를 보며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의 무아경에 잠긴다.

진정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바다도 통채로 옮겨와야 한다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인민들에게 다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인민사랑이 이런 행복넘친 시간, 문명의 새 화폭을 펼쳐놓은것 아니랴.



조교사들과 교감하며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리는 곱등어들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감탄과 환성을 터뜨린다.

여러 기교동작들을 재치있게 수행하는 《희극배우》
물개의 출연에 관람석에서는 련속 폭소가 터져나온다.

3차원세계에 빠져

사람들에게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와 같은 감흥을 주며 모험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립체률동영화관

릉라도의 입구에서 얼마쯤 들어가느라면 아담한 건물이 나선다. 바로 릉라립체률동영화관이다.

건물은 비록 크지 않아도 이안에 들어서면 하늘과 땅, 바다의 독특한 세계를 여러가지 정황속에서 생동하게 체험할수 있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며 즐겨 찾는다.

릉라립체률동영화관은 5개의 열람실과 2개의 사격유희오락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열람실들에서는 《뜻밖의 봉변》, 《희망이여 나래치라》, 《환상의 남극바다》,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등 30편의 립체률동영화를 상영하고있으며 2개의 사격유희오락장에서는 6편의 유희오락을 봉사하고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취미와 성격, 나이와 건강상태에 맞는 립체률동영화를 선택하여 관람할수 있다.

립체률동영화는 사람의 시각을 모의해서 만든 립체영상과 음악효과, 그에 따라 움직이는 률동기재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사람들은 남극의 바다세계에서 맹어와 맞다들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화산분화구에서 빠져나오기도 하면서 신비롭고 황홀한 환상세계속에서 아슬아슬함과 긴장감, 기쁨과 즐거움 등 각이한 감정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영화관람을 마치고 사람들은 저저마다 《비행기를 또 타보고싶다.》, 《굉장히 큰 물고기가 내옆을 스쳐갈 땐 정말이지…》, 《평생 해보지 않은 모험을 여기서 해보았다.》라고 하며 탄성을 금치 못한다.

유원지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끊길줄 모른다.

률동영화의 세계에 빠져…

➡ 손녀: (꼭 할아버지를 이길테야.)
할아버지: (내가 어린 손녀한테 질수야 없지.)

⬅ 가상현실체험유희기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쾌감을 안겨준다.

➡ 누구든 사격유희오락기재에 마주앉으면 시간가는줄 모른다.

이상하게 비쳐진 자기 모습들을 보고 깔깔거리는 어린이들

웃음집인가, 거울집인가

각이한 인상변화로 사람들을 즐거움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웃음집

우습강스럽게 생긴 원숭이 한마리가 긴 팔로 반대쪽 귀를 휘둘러잡고있는 모양의 집이 눈앞에 보인다.

여긴 또 어떤 재미있는 곳일가.

호기심어린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들어간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하하, 호호호… 그칠새없이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여기가 바로 릉라인민유원지의 웃음집이다.

큼직한 방의 여기저기에 각이한 크기에 각이한 모양의 거울들이 놓여있는데 그앞에만 서면 누구나 배를 그러쥐고 웃는다.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마주 붙어있는 모양, 몸을 길게 잡아늘군 모습, 몸전체가 함축된 모습, 뚱뚱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울들, 사람의 모양을 10초에 한번씩 변형되게 만들어놓아 15분동안에 수십가지의 인상변화와 몸형태변화를 직접 볼수 있게 한 전자거울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운다.

거울을 보고 웃는것인지, 웃는 사람을 보고 웃는것인지…

그래서 웃음집인지, 거울집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한것 같다.

수십여개의 거울들을 지나치며 사람들은 10년은 젊어졌다고 저저마다 이야기한다.

즐겁고 유쾌한 유희장으로

아찔하면서도 흥취를 돋구는 여러가지 유희기구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아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 릉라유희장

한껏 달아올랐던 대기온도가 선선한 대동강바람과 함께 한풀 꺾일무렵 릉라유희장이 문을 열었다.

릉라유희장은 저녁의 즐거움을 찾으려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둠은 밝고 선명한 모든것을 삼켜버린다지만 릉라도의 밤은 그야말로 불의 천지이다.

곳곳에 형형색색의 조명등이 설치되여 밝고 화려하게 장식된 유희장은 두개의 구역으로 나뉘여져있는데 두개의 구역을 오가는 유람기관차가 있어 사람들은 수십여가지의 유희기구들을 마음대로 탈수 있다.

긴장감과 쾌감속에 떠드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린다.

타래회전반, 꼬임회전반, 륌성회전반, 우주회전반, 회전매, 회전비행기, 급강하탑 등 여러가지 유희기구들이 드넓은 릉라유희장의 곳곳에 멋진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한번 타보고는 또 타겠다며 저저마다 야단법석이다.

유희기구속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인상이 너무도 웃음을 자아내여 타는 재미 못지 않다며 구경군들 또한 장사진을 치고있다. 땅우에도 하늘중천에도 웃음소리로 꽉 차있는 릉라유희장이다.

한편 여러 전자오락기구들이 꽉 들어찬 전자오락관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오락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흥성인다.

참으로 릉라인민유원지는 어디 가나 장관이요, 어디 가나 인민의 웃음꽃바다이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그처럼 발악해도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자부와 믿음속에 터치는 우리 인민들의 이 행복의 웃음은 결코 없애지 못하리라.

인민의 행복을 비껴담고 릉라도여,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생기와 활력에 넘쳐 인민의 섬, 인민의 유원지로 빛을 뿌리라.

릉라유희장에는 긴장감과 쾌감을 안겨주는 현대적인 유희기구들이 있어 남녀로소 누구나 즐겨 찾는다.

무서울가, 재미있을가, 회전비행기에 올라 하늘공중으로 오른 사람들의 기분은 진짜 어떨가?

어른도 아이들도 누구나 전기자동차에 오르면 즐거움에 빠져 시간가는줄 모른다.

유희기구를 탄 동무들의 모습 또한 재미있는지 손을 흔들며 환성을 터뜨리는 학생소년들

전자오락관에는 회전오토바이, 회전말 등 즐거움을 자아내는 여러가지 전자오락기구들이 있다.

《<우리 이번 일요일에 릉라도에 가자.>, 이것이 제가 8살짜리 아들을 달랠 때마다 쓰는 말이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릉라도는 이미 휴식의 대명사로 되여있답니다.》

농업성 간석지관리국 연구사 김인호(47살)

《릉라도엔 없는게 없습니다. 여름방학기간에 수영도 배우고 곱등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연관찰도 하고, 정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동무들과 같이 매일이다싶이 옵니다.》

모란봉제1중학교 학생 박유미(15살)

《로친이 날보고 나날이 젊어진다고 합디다. 비결은 바로 릉라도에 있지요.》

모란봉구역 인흥1동 리학길(66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많은 부자들이나 곱등어공연을 볼수 있다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런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두고 어찌 <세상에 부럼없다.>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동강구역 문수3동 주명실(42살)

자랑하세 꽃피는 릉라도

청류벽과 옥류동에 무지개다리 놓고
사람마다 노래하며 릉라도 찾아가네
얼싸 좋구나 우리의 릉라도
대동강의 절경우에 락원이 솟아났네

쳐다보니 하늘가에 경기장 높이 솟고
바라보니 새로 열린 금릉동굴 멋이로다
얼싸 좋구나 우리의 릉라도
대동강의 절경우에 락원이 솟아났네

은혜로운 손길아래 꽃펴난 유원지라
기쁨속에 해가 솟고 웃음속에 해저무네
얼싸 좋구나 우리의 릉라도
대동강의 절경우에 락원이 솟아났네